

NYPI YOUTH REPORT

청소년리포트

vol.11 _ 11 / 2010

ISSN 2005-9183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테마!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

NYPI

미래세대리포트 청소년 또래멘토링봉사활동 시범사업 개요 | 김지연

조사통계리포트 청소년 사회참여의 현황과 과제 | 김경준

정책제언리포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과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안 | 오해섭

해외동향리포트 미국의 아동·가족 지원 정책 | 서정아

칼럼 청소년 멘토링,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 김지연

발간물 소개 NYPI발간물 / 자료실 신착 도서

NYPI NEWS

YOUTH

REPORT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NYPi YOUTH REPORT

vol.11 2010. 11

발행일 | 2010.11.30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2188-8860 팩스 | 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ee.com

인 쇄 | 엘에스컴(2263-1992)

홈페이지 | www.nypi.re.kr



- 04 | 🌐 미래세대 리포트 청소년 또래멘토링봉사활동 시범사업 개요_ 김지연
- 12 | 📊 조사통계 리포트 청소년 사회참여의 현황과 과제_ 김경준
- 24 | 📖 정책제언 리포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과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안_ 오해설
- 31 | ✈️ 해외동향 리포트 미국의 아동·가족지원정책_ 서정아
- 45 | 📄 칼럼 청소년 멘토링, 이제 국가가 나서야한다_ 김지연
- 47 | 📖 발간물 소개
- 56 | 📰 NYPI NEWS

청소년 **포래멘토링봉사활동** 시범사업 개요¹⁾

김지연(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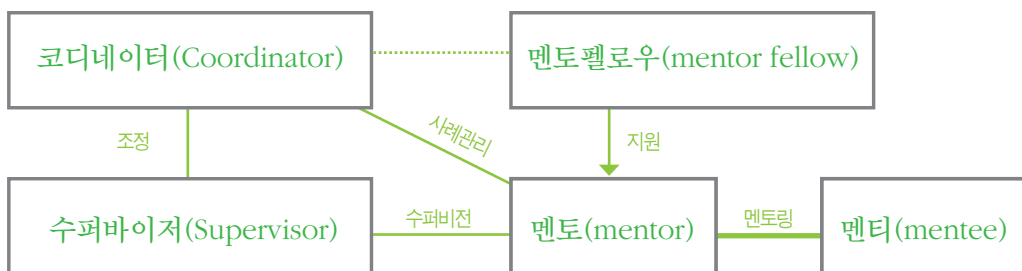


1. 청소년 또래멘토링봉사활동의 특성

일반적으로 멘토링(mentoring)은 경험이 풍부한 멘토(mentor)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멘티(mentee)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멘티 뿐 아니라 멘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멘토링의 상호적인 효과가 부각되면서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멘토로 참여하는 또래멘토링(peer mentor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멘토링을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멘토가 역할모델이 되면 멘토, 멘티가 모두 성장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때(김지연, 2009), 멘토링봉사는 ‘지속성’,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혹은 되고자 하는) 청소년 멘토’, ‘상호적 효과’가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 멘토링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봉사활동의 기본원칙인 자발성, 이타성(복지성), 무보수성을 기반으로 한다. 즉,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멘토가 멘티의 성장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무보수로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는 봉사활동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은 동급생(same-age), 상급생과 하급생(near-age), 4살 이상의 연령차가 있는 동년배(cross-age) 등 다양한 형태가 관찰된다. 기존에 멘티에 머물러 있던 청소년이 멘토로 참여하는 만큼 성인 멘토에 의한 멘토링에 비해 사회적 측면에서의 발달과 성취 즉, 의미 있는 또래관계 자체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Karcher, 2007: 3-6). 또한, 성인에 비해 활동 내용에 있어 보다 구조화가 요구된다. 결국 멘토링은 멘티, 멘토의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멘토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그림 1>과 같이 멘토, 멘티의 결연과 멘토링 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멘토의 교사 및 가족 등 멘토의 지지체계(멘토 펠로우), 멘토에 대한 교육과 사례(case)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필수 인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 또래멘토링의 인적구성

1)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시범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 고유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I”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글은 현재 집필 중인 세부보고서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보고서” 및 “청소년 또래멘토링 운영 지침 개발 연구”의 일부를 밝힌다

2.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 시범사업

1) 운영 기간 : 2010년 6월 ~ 8월 (3개월)

2) 운영 과정

2010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청소년 시설 및 단체 가운데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총 6개의 사업 운영 기관을 최종 선발하였다. 운영 기관 6곳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멘티, 멘토를 모집하였으며 멘토는 중·고·대학생으로 교내 홍보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멘티는 초등학교생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각 기관별로 20팀에서 30팀 내외의 멘토-멘티 팀을 구성하였고 멘토링의 효과성 검토를 위해 멘티, 멘토의 비교집단을 두는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활용하였다.²⁾

시범사업 운영기관은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별로 1인의 결연관리자(coordinator)를 배치하였다. 결연관리자는 시범사업의 전담인력으로 멘티, 멘토 모집과 관리, 교육, 결연, 프로그램 진행과 자체 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구진은 멘티, 멘토 교육자료를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 지침(안)과 효과성 측정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양적, 질적 분석방법을 병행하여 효과성 검증을 시도하였다.³⁾ 시범사업에 참여한 운영 기관 및 멘티, 멘토의 소속 기관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 또래멘토링봉사활동 운영 기관 현황

구분	운영 기관	청소년 멘토	지역	멘티기관 / 멘토기관
1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중학생	도시	에덴·대명9동지역아동센터 경일여자중학교
2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등학생		보문지역아동센터 대전외국어고등학교
3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학생		영등포·꿈의학교·나비힐링·신당꿈 지역아동센터 건국대 외 9개 대학교
4	박달재수련원	중학생	농산어촌	도화늘푸른지역아동센터 백운중학교
5	화성시자원봉사센터	고등학생		기안·화성희망지역아동센터 봉담고등학교
6	한국BBS경상북도연맹	대학생		우리아이지역아동센터 경북전문대학

2) 멘티 비교집단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및 같은 지역 내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107명, 멘토 비교집단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와 같은 학교의 동일 학년 학생으로, 대학생은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 총 110명으로 하였다. 사전조사의 ANCOVA 분석 결과 멘티, 멘토와 비교집단은 성별, 가정형편,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 자아존중감, 외로움, 학교생활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시범사업의 효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세부 활동 내용(문화·체육·여가·학습 활동 등)은 멘티, 멘토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멘토 교육 시간(8시간 이상)과 멘티-멘토의 면대면(face-to-face) 만남의 횟수(10회 이상), 그리고 결연관리자 1인과 슈퍼바이저 배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 청소년 또래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 학습(교육): 봉사학습으로서의 멘토링에 초점 맞추기
- 규칙: 규칙이 준수되는 멘토링 운영하기
- 체험: 멘티, 멘토가 해 보지 않았거나 하고 싶은 체험활동을 통해 돈독한 멘토링 관계 맺기 지원
- 구조화: 멘토의 역량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금물! 교육+개별활동+집단활동+수퍼비전+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구조화하기
- 참여: 기획과정에서부터 멘티, 멘토의 욕구를 파악하고 참여시키기,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등 유관기관의 참여 독려하기

(1) 기관별 개별활동 사례

① A기관(중학생 멘토_도시지역)

총 16회기 가운데 결연식과 평가회, 멘토교육 각 1회를 제외하고 집단활동 3회 10회의 개별활동을 실시하였다. 멘토가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바둑 등 프로그램을 멘티와 함께 수강하면서 멘티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멘티의 일상생활에 소소한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센터 내에서 멘티의 과제와 학습을 도와주거나 시험공부를 함께 하기도 하고 센터 근처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주로 실시하였다

② B기관(중학생 멘토_농산어촌지역)

멘티, 멘토가 함께 오카리나를 배우며 상호작용 하고 우애를 다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멘토가 멘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멘티가 멘토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악기라는 매개물이 있어서 멘토의 부담이 현저히 적었고 멘티, 멘토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점에서 쉽게 관계 형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③ C기관(고등학생 멘토_농촌지역)

총 6회의 개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지역이라 버스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은 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멘티, 멘토의 학교 근처와 지역아동센터 인근으로 활동 반경을 제한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멘토가 방문하여 멘티의 숙제와 과제 돕기, 일본어 공부하기, 독서 지도 등을 주로 하였고 도서관 이용하기, 멘티, 멘

토 학교 방문하기 등을 실시하였다.

④ D기관(고등학생 멘토_도시지역)

총 6회의 개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함께 영화를 보거나 동물원 관람, 함께 운동하기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총 20팀이 개별활동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이다. 멘티와 멘티 부모가 동의 한 경우 가정방문도 시도되었으며 기타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사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단위: 회)

계	학습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지역탐방	가정방문	고민상담	기타
118	17	52	21	6	3	2	17

⑤ E기관(대학생 멘토_농촌지역)

개별활동은 총 21회 실시하였으며 멘토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과제와 기초학습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협소하여 총 20명의 멘토가 요일을 나누어 방문하였고 경우에 따라 멘티 외에 다른 아동들을 함께 돌봐야 하기도 했다.

⑥ F기관(대학생 멘토_도시지역)

개별활동은 총 10회 실시하였으며 총 24팀이 활동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멘티의 학습을 돕는 것 외에 멘티, 멘토가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사진 찍기, 인근 도서관과 서점을 이용하여 좋은 책 고르기, 같은 책 읽고 독후감 쓰기, 멘토가 다니는 대학에 멘티를 초대하여 견학하기, 멘티의 공부 돕기 등 멘토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개별 활동을 실시하였다.

2) 집단활동 사례

① A기관(중학생 멘토_도시지역)

결연식 후 물놀이 캠프, 영화관람, 뮤지컬관람 등 총 3회 실시하였다. 결연식 직후 멘티, 멘토가 함께 물놀이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여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② B기관(중학생 멘토_농촌지역)

멘티, 멘토가 함께 1박 2일의 문화체험 수련회와 그 동안 함께 배운 오카리나 연주 발표회를 지역 주민들 앞에서 공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1박 2일의 캠프를 통해 멘티, 멘토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친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오카리나 연주 발표회는 멘티, 멘토 모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시간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③ C기관(고등학생 멘토_농촌지역)

총 5회의 집단활동을 가졌으며 클레이아트 만들어 서로 교환하기, 케익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누기, 버스타고 지역 시티투어하기, 핸드페인팅으로 커플티 만들어 교환하기 등의 시간을 가졌다.

④ D기관(고등학생 멘토_도시지역)

1박 2일의 캠프, 책꽂이 만들기, 멘토 학교 방문하기, 미니 운동회 등 총 4회의 집단활동을 실시하였다. 결연 초에 캠프를 진행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⑤ E기관(대학생 멘토_농촌지역)

미니 운동회, 서바이벌 게임, 물놀이, 삼겹살 파티 등 총 4회의 집단활동을 실시하였다. 기차여행과 영화관람 일정이 멘티, 멘토의 사정으로 인해 삼겹살 파티로 변경 운영하여 진행하였다.

⑥ F기관(대학생 멘토_도시지역)

DISC 행동유형검사와 상담, 뮤지컬 관람, 청와대 및 경복궁 관람 등 총 3회의 집단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행동유형검사는 행동유형과 성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결연과 이후 멘토링 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의 의미와 과제

일반적으로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의 장점은 첫째, 청소년이 멘토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멘토의 수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성인 멘토를 모집하는 과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마케팅과 아웃리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또래간의 친화력을 기반으로 관계 형성이 용이하다. 셋째, 멘토는 학교 및 사회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전환기(turning point)를 비교적 최근에 미리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멘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멘토링 관계(mentoring relationship) 속에서 멘토는 자신감을 포함하여 이후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봉사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과의 멘토링활동을 불편해 하는 일부 멘티와 부모에게 보다 친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Gaminger and MacRae, 2008).

그러나, 성인 멘토에 의한 멘토링과 비교할 때 멘토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는 멘티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활동에 앞서 멘토에 대한 교육과 수퍼비전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멘토링이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멘토의 자질을 갖춘 청소년을 발굴하여 멘티와 결연하는 소극적인 노력보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멘토의 자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b). 특히, 청소년 멘토가 성인 멘토가 되고 오늘의 멘티가 내일의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연(20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a).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워크숍자료집.
(2010b).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워크숍.
- Gaming, M. and MacRae, P.(2008). Building effective peer mentoring programs in schools: An introductory guide. CA: Mentoring Resource Center.
- Karcher(2007). Cross-age peer mentoring. Research in Action, Issue 7, pp.1-24.

청소년 사회참여의

현황과 과제

김경준(선임연구위원)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청소년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지도 어느덧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지난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 이후부터 청소년참여를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왔으며, 2003년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참여 보장을 청소년육성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청소년참여를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정한 바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은 이러한 청소년참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기구로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밖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청소년참여정책이 여전히 명목성과 형식성을 탈피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대다수 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참여의 영역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에 관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해와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조사개요

전국의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사회참여의 의미, 필요성, 경험 등을 포함한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주요 사회참여활동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과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욕구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중·고등학생은 1,800명(중학생 900명/고등학생 9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5대 권역과 도시규모를 층화기준으로 하여 모집단(교육부 통계기준 학생수) 구성비율에 따라 다단계층화집락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학교를 대표구로 추출하고, 최종 표집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2,014명이 중고생 표본이 되었다. 대학생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9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전국을 5대 권역(서울/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배분하고, 전국 20개 학교에서 학교당 45명을 표집하도록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899명이 표본이 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청소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참여와 관련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49.9%, 여자 청소년이 50.1%로, 남자청소년이 조금 더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4.4%, 고등학생 34.7%(일반계 고등학생이 26.7%, 전문계 고등학생이 8.0%), 대학생이 30.9%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58.9%, 중소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33.4%, 농어촌지역의 청소년이 7.7%였다.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64.4%의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못산다와 매우 못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각각 12.9%, 2.4%, 잘산다와 매우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15.8%, 2.3%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대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44.5%, 종교가 없는 청소년이 53.5%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대해서는 중위권과 중상위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각각 35.8%, 27.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위권이 18.5%, 상위권 11.1%, 하위권이 7.4%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1〉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성별	남자	49.9(1,453)
	여자	50.1(1,460)
학교급	중학교	34.4(1,003)
	일반계 고등학교	26.7(779)
	전문계 고등학교	8.0(232)
	대학교	30.9(899)
지역규모	대도시	58.9(1,715)
	중소도시	33.4(973)
	농어촌	7.7(225)
성적	상위권	11.1(322)
	중상위권	27.2(792)
	중위권	35.8(1,044)
	중하위권	18.5(539)
	하위권	7.4(216)
경제수준	매우 잘산다	2.3(66)
	잘산다	15.8(459)
	보통이다	64.4(1,875)
	못산다	12.9(377)
	매우 못산다	2.4(71)
	무응답	2.2(65)
종교	유	44.5(1,296)
	무	53.5(1,558)
	무응답	2.0(59)
전체		100.0(2,913)

4. 조사 결과

1)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의미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참여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가문화활동의 기획·실행, 인터넷언론매체에 의견 제시, 경제활동 참여, 정책행정과정 참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자원봉사활동 참여(61.5%)나 여가·문화활동 참여(51.7%)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터넷이나 관련 매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한 정도(42.3%)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37.1%)나 정책이나 행정과정에서의 참여(32.8%)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참여활동으로 인식하고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의 의미

단위: %(빈도)

항목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가문화활동 기획실행	인터넷언론 매체의견제시	경제활동 참여	정책행정 과정참여	기타
전체	61.5	51.7	42.3	37.1	32.8	6.2
중학교	61.8	55.3	39.6	37.4	29.2	10.2
일반계 고등학교	63.2	55.6	52.0	36.7	42.3	6.0
전문계 고등학교	56.2	50.9	40.3	42.0	31.0	6.2
대학교	61.0	44.7	37.4	35.9	29.3	1.9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52.0%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 및 관련 매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사회참여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중학생(39.6%)이나 전문계 고등학생(40.3%), 대학생(37.4%)에 비해 인터넷 및 관련 매체에 참여하는 활동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전문계 고등학생(42.0%)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 중학생(37.4%), 일반계 고등학생(36.7%), 대학생(35.9%)에 비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42.3%)의 경우에는 정책 및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중학생(29.2%), 전문계 고등학생(31.0%), 대학생(29.3%)에 비해서 보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밀접한 입시정책이나 권리와 관련한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정책 및 행정과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가·문화활동의 기획·실행(61.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58.8%), 인터넷·언론매체에 의견 제시(47.6%), 경제활동 참여(42.6%), 정책·행정과정에 참여(36.3%)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 중에서 여가·문화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필요성

단위: %(빈도)

항목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기타
인터넷·언론매체에 의견제시	3.0	8.6	40.8	35.6	12.0	100.0(2,910)
정치·행정과정에서의 참여	4.3	17.4	42.0	26.3	10.0	100.0(2,909)
자원봉사활동 참여	2.6	6.2	32.3	37.9	20.9	100.0(2,909)
경제활동 참여	4.4	15.8	37.2	28.4	14.2	100.0(2,909)
여가/문화활동 기획·실행	2.1	4.8	31.6	36.4	25.1	100.0(2,910)

3) 청소년 사회참여의 경험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경험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79.9%로 가장 많고, 여가·문화활동 기획·실행 경험 이 68.8%, 인터넷·언론매체 의견 제시 경험이 49.6%,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45.0%, 정책·행정과정 참여 경험이 23.2%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과 여가·문화활동 기획·실행 경험이 매우 많다는 청소년도 각각 18.9%, 1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 사회참여의 경험

단위: %(빈도)

항목	전혀 없다	어느 정도 있다	매우 많다	기타
인터넷·언론매체에 의견제시	50.5	43.4	6.2	100.0(2,908)
정책·행정과정에서의 참여	76.8	19.9	3.3	100.0(2,908)
자원봉사활동 참여	20.1	61.0	18.9	100.0(2,910)
경제활동 참여	55.0	34.1	10.9	100.0(2,906)
여가/문화활동 기획·실행	31.3	50.8	18.0	100.0(2,907)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사회참여활동을 살펴보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사회참여 관련 동아리모임(29.4%), 인터넷을 통한 참여활동(27.9%), 청소년 문화행사관련활동(9.0%), 청소년단체 소속활동(4.0%), 청소년 인권활동(3.4%), 시민단체 소속 청소년 모임 활동(3.4%), 청소년 언론활동(3.3%), 청소년 의회 활동(1.4%), 정치참여관련 청소년 모임(1.2%), 청소년 특별회의 활동(0.9%), 각 시도 청소년위원회 활동(0.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20.7%의 청소년들은 최근 1년간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대부분 경험이 많았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74.7%)과 인터넷을 통한 참여활동 경험(30.7%)이 가장 많은 반면, 대학생들은 학교 사회참여 관련 동아리모임활동 참여(33.1%)가 가장 많았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문화행사 관련 활동(12.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참여(79.1%)만 가장 많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사회참여 활동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지역의 학생들보다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근 1년 간 참여한 사회참여활동

단위: %(빈도)

항목	학교나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학교 사회참여 관련 동아리모임	인터넷을 통한 참여활동	참여 경험 없음	청소년 문화행사 관련 활동	빈도	
전체	66.7	29.4	27.9	20.7	9.0	2,902	
성별	남자	62.3	28.3	27.3	23.2	8.1	1,449
	여자	71.0	30.4	28.5	18.2	9.8	1,453
교급별	중학교	71.2	23.4	27.3	18.2	7.6	999
	일반계고등학교	74.7	32.9	30.7	16.0	9.2	775
	전문계고등학교	62.0	28.4	27.1	23.1	12.2	229
	대학교	56.0	33.1	26.3	26.8	9.6	899
지역별	대도시	63.0	30.7	27.6	22.7	9.1	1,710
	중소도시	70.2	28.2	28.5	18.2	9.0	967
	농어촌	79.1	24.0	27.1	16.0	8.0	225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및 욕구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일손돕기가 6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위문·돌봄활동(51.4%), 환경·시설보존활동(34.0%), 자선·구호활동(29.4%), 홍보·캠페인활동(18.0%), 지도·상담활동(12.9%), 지역사회개발활동(11.6%), 해외봉사활동(6.1%) 등으로 단순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6〉 참여했던 자원봉사활동 영역

단위: %(빈도)

항목	일손 돕기	위문 돌봄	환경 시설보존	자선 구호	홍보 캠페인	전체 (빈도)
전체	65.0	51.4	34.0	29.4	18.0	1,936
중학교	55.4	43.7	32.4	30.6	16.3	630
일반계고등학교	73.5	56.2	44.1	34.1	22.5	578
전문계고등학교	64.2	54.3	39.1	28.5	15.2	151
대학교	67.2	54.4	24.3	23.7	15.9	577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0시간 이하(37.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1~20시간(30.7%), 21~30시간(14.8%), 31~40시간(5.1%) 등으로, 60% 이상의 많은 청소년들이 20시간 이내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대학생들의 경우에 다른 교급에 비해서 10시간 이하가 47.7%로, 다른 교급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경험 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의 학생들이 10시간 이하가 4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경험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신성적 반영(학점 이수)(54.1%)이었으며, 그 다음

으로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16.6%),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어서(9.3%), 이웃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7.8%), 언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6.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단위: %(빈도)

항목	내신 성적 반영	보람 있는 일	새로운 경험	도움주고 싶어서	장래도움 받을 가능성	주위의 권유	기타	전체
전체	54.1	16.6	9.3	7.8	6.9	7.8	6.9	100.0(1,930)
중학교	66.2	11.2	5.3	7.3	5.3	7.3	5.3	100.0(627)
일반계고등학교	62.3	15.2	5.7	4.5	6.4	4.5	6.4	100.0(578)
전문계고등학교	56.0	18.0	6.0	4.7	7.3	4.7	7.3	100.0(150)
대학교	32.3	23.7	18.3	12.3	9.2	12.3	9.2	100.0(575)

***P < .001($\chi^2=211.390$)

특히, 중학생(66.2%)과 일반계 고등학생(62.3%)의 경우에는 다른 교급에 비해서 내신성적 반영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점이수 때문에(32.3%)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보람있이라 생각해서(23.7%)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어서(18.3%)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이타적인 동기보다는 성적 반영이 더 많아, 그 동기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

앞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해외봉사활동과 지도·상담활동이 각각 4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개발활동(33.5%), 위문·돌봄활동(33.0%), 홍보·캠페인활동(31.9%), 일손돕기(31.7%), 자선·구호활동(29.6%), 환경·시설보존활동(23.8%)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참여했던 봉사활동과 희망하는 봉사활동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52.4%)이나 일반계 고등학생(59.9%), 전문계 고등학생들(47.9%)은 동·하급생 대상으로 특기 및 생활지도나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는 지도·상담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아, 향후 청소년 봉사활동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영역

단위: %(빈도)

항목	해외 봉사	지도 상담	지역사회 개발	위문 돌봄	홍보 캠페인	전체 (빈도)
전체	49.7	49.7	33.5	33.0	31.9	1,888
중학교	46.3	52.4	41.2	39.4	37.9	607
일반계고등학교	52.2	59.9	36.7	28.2	33.7	531
전문계고등학교	36.6	47.9	30.3	31.0	31.0	142
대학교	53.9	38.5	23.7	31.3	24.5	608

5)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경험

(1)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능을 장기간 봉사하게 되는 멘토링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2.8%(‘알고 있는 편이다’ 18.0%, ‘잘 알고 있다’ 4.8%), 모른다는 청소년은 60.2%(‘모르는 편이다’ 31.1%, ‘전혀 모른다’ 29.1%)로 멘토링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19.3%)보다는 여학생들(26.2%)이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대학생(35.9%)이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생(20.6%), 중학생(14.8%), 전문계 고등학생(13.1%)의 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27.5%)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학생들보다도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 인지여부

단위: %(빈도)

	항목	전혀 모른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 이다	알고 있는 편이다	잘 알고 있다	전체
성별 ¹⁾	전체	29.1	31.1	17.1	18.0	4.8	100.0(2,902)
	남자	33.6	30.8	16.4	15.1	4.2	100.0(1,448)
	여자	24.7	31.4	17.7	20.8	5.4	100.0(1,454)
교급별 ²⁾	중학교	36.1	33.9	15.2	11.4	3.4	100.0(998)
	일반계고등학교	31.1	30.1	18.1	16.6	4.0	100.0(777)
	전문계고등학교	41.0	28.4	17.5	11.4	1.7	100.0(229)
	대학교	16.6	29.5	18.0	28.1	7.8	100.0(898)
지역별 ³⁾	대도시	24.6	30.3	17.6	21.5	6.0	100.0(1,707)
	중소도시	36.7	32.2	15.9	12.0	3.2	100.0(971)
	농어촌	30.8	32.1	18.3	16.5	2.2	100.0(224)

1) ***P < .001(χ²=36.024) 2) ***P < .001(χ²=191.803) 3) ***P < .001(χ²=78.092)

전체적으로 볼 때,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최근 각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멘토링의 영향 등으로 그나마 대학생들의 경우에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의 필요성

지역사회 내 저소득가정 아동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9.0%의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필요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의 필요성

단위: %(빈도)

항목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 하다	전체
전체	2.5	4.9	33.7	44.2	14.8	100.0(2,905)
성별 ¹⁾	남자	3.9	6.7	37.6	38.7	100.0(1,448)
	여자	1.2	3.0	29.8	49.6	100.0(1,457)
교급별 ²⁾	중학교	3.1	6.5	41.0	37.4	100.0(1,000)
	일반계고등학교	2.8	5.9	34.9	42.3	100.0(777)
	전문계고등학교	5.2	6.1	39.8	33.3	100.0(231)
	대학교	0.9	1.8	22.9	56.1	100.0(897)
지역별 ³⁾	대도시	2.2	4.6	30.4	46.9	100.0(1711)
	중소도시	3.4	5.9	37.2	40.4	100.0(969)
	농어촌	1.3	2.2	43.6	39.6	100.0(225)

1) ***P< .001(x²=79.120) 2) ***P< .001(x²=152.692) 3) ***P< .001(x²=36.771)

성별로는 여학생들(66.1%)이 남학생들(51.8%)에 비해서 멘토링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74.5%)이 그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생(56.3%), 중학생(49.4%), 전문계 고등학생(4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의 학생들(62.8%)이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53.6%), 농어촌지역의 학생(52.9%)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청소년들이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나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서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멘토링봉사활동 참여에 대해서 과반수 정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3)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 참여 경험

청소년들의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은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멘토링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7%였고, 93.3%의 청소년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10.2%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이 5.5%, 전문계 고등학생이 5.2%, 중학생이 4.8%의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의 학생의 참여경험이 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학생(4.4%), 농어촌 학생(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멘토링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멘티로서 참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역할 경험을 알아보았다. 72.0%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경험하였으며, 28.0%가 멘티로서의 역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78.4%)이 남학생들(64.8%)보다도 멘토로서의 경험을 많이 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경우에 90.2%의 대부분이 멘토로서의 경험을 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61.9%,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66.7%가 멘토로서의 경험을 하였고, 중학생들은 46.8%가 멘토로서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 참여 경험

단위: %(빈도)

항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전체	6.7	93.3	100.0(2,911)
교급별 ²⁾	중학교	4.8	100.0(1,001)
	일반계고등학교	5.5	100.0(779)
	전문계고등학교	5.2	100.0(232)
	대학교	10.2	100.0(899)
지역별 ³⁾	대도시	8.7	100.0(1,714)
	중소도시	4.4	100.0(972)
	농어촌	1.3	100.0(225)

1) P> .05(x²=0.610) 2) ***P< .001(x²=26.373) 3) ***P< .001(x²=29.320)

〈표 12〉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에서의 역할

단위: %(빈도)

항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전체	72.0	28.0	100.0(193)
성별 ¹⁾	남자	64.8	100.0(91)
	여자	78.4	100.0(102)
	중학교	46.8	100.0(47)
	일반계고등학교	61.9	100.0(42)
교급별 ²⁾	전문계고등학교	66.7	100.0(12)
	대학교	90.2	100.0(92)

1) *P< .05(x²=4.412) 2) ***P< .001(x²=32.247) 3) P> .05(x²=2.730)

청소년들의 멘토링봉사활동 참여 기간은 3개월 미만인 3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6개월이 27.2%, 6개월~1년이 16.9%, 1년 이상이 12.3%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의 참여가 가장 많은 반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3개월~6개월의 참여가 4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봉사활동의 참여 횟수는 평균 1주일에 1회 정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1주일에 1회(3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주일에 2회 이상(25.6%), 한달에 1회(14.4%), 2주일에 1회(11.8%) 등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도 전문계 고등학생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주일에 1회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5)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 및 문제점

(1) 향후 멘토링봉사활동 참여의사

청소년들이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멘토링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48.3%였으며, 참여의사가 없는 청소년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멘토링 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의사가 높았다.

〈표 13〉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 참여 의사

단위: %(빈도)

항목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있는 편이다	매 많다	전체
전체	5.3	10.6	35.9	35.7	12.6	100.0(2,908)
성별 ¹⁾	남자	8.3	12.3	40.2	29.8	100.0(1,452)
	여자	2.2	8.9	31.7	41.5	100.0(1,456)
교급별 ²⁾	중학교	7.2	12.5	35.6	31.5	100.0(1,001)
	일반계고등학교	6.0	9.5	34.7	35.4	100.0(779)
	전문계고등학교	6.5	11.6	34.5	33.2	100.0(232)
	대학교	2.1	9.0	37.8	41.2	100.0(896)
지역별 ³⁾	대도시	4.1	10.3	36.9	35.9	100.0(1,711)
	중소도시	6.7	12.0	35.8	34.3	100.0(972)
	농어촌	8.0	6.2	29.3	40.0	100.0(225)

1) ***P < .001(x²=124.921) 2) ***P < .001(x²=54.731) 3) ***P < .0015(x²=26.678)

성별로는 참여의사가 있는 여학생들이 57.2%로 남학생의 39.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도 대부분 학교급에서 4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의 참여 의사(51.0%)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생(49.8%), 전문계 고등학생(47.4%), 중학생(44.8%)의 순이었다. 하지만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학생보다도 중·고등학생들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56.4%)이 대도시(48.8%)나 중소지역의 학생들(45.5%)보다도 참여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청소년들이 멘토링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 부족(36.1%)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부담(19.4%), 멘토링봉사활동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12.6%), 지속적인 결연에 대한 부담(11.8%), 구체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는 것(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남학생들(40.2%)이 여학생들(32.0%)보다 시간 부족을 더 큰 어려움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이 밖에 소요경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여학생들(21.3%)이 남학생들(17.5%)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대부분 시간 부족을 가장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소요 경비 지출에 대한 부담(22.0%)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시 어려운 점

단위: %(빈도)

항목	부모 이해 미흡	경비 지출 부담	시간 부족	인식 부족	1:1 결연 부담	활동 방법 모름	결연 부담	기타	전체	
전체	2.8	19.4	36.1	12.6	5.0	36.1	12.6	5.0	100.0(2,908)	
성별 ¹⁾	남자	3.0	17.5	40.2	12.4	5.0	40.2	12.4	5.0	100.0(1,452)
	여자	2.5	21.3	32.0	12.8	5.0	32.0	12.8	5.0	100.0(1,456)
교급별 ²⁾	중학교	4.0	18.8	36.9	10.6	7.1	36.9	10.6	7.1	100.0(1,001)
	일반계고등학교	2.4	17.6	36.2	13.7	5.0	36.2	13.7	5.0	100.0(779)
	전문계고등학교	3.9	29.3	22.0	16.8	1.3	22.0	16.8	1.3	100.0(232)
	대학교	1.4	18.9	38.8	12.7	3.7	38.8	12.7	3.7	100.0(896)
지역별 ³⁾	대도시	2.7	18.9	36.4	12.3	5.4	36.4	12.3	5.4	100.0(1,711)
	중소도시	2.8	20.6	36.9	12.4	3.8	36.9	12.4	3.8	100.0(972)
	농어촌	3.6	17.9	29.9	15.6	7.6	29.9	15.6	7.6	100.0(225)

1) ***P < .001(x²=36.613) 2) ***P < .001(x²=82.537) 3) P > .05(x²=13.563)

5. 결 론

청소년들은 사회참여활동의 대표적인 의미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경험도 다른 사회참여활동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학교 의무화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이지 않고 학교 성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나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기관들 모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봉사기관에서 제공되는 봉사활동 내용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손돕기와 같은 단순한 활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으며, 앞으로의 봉사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소득가정 아동을 돌보는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들의 참여의 사도 높은 편이다. 청소년 멘토링활동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의 청소년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그 역사가 짧고, 주로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멘토로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어서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본 조사에서 멘토링봉사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참여시간 부족, 소요 경비에 대한 부담, 멘토링봉사활동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과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안 >>>

오해섭(연구위원)



1. 시작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진전 및 가치·문화의 다양성의 사회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라 당연시 되었던 기존의 '지위에 의한 권위'는 축소되고 있다. 반면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부여되는 '개인적 권위(Personal authority)'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동시에 성인과 청소년들 간의 평등한 유대관계(partnership)의 중요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청소년과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가져왔으며, 외부 주도형 정책형성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조화순·송경재, 2004).

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른 참여 확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용이해져 정부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주요정책 및 활동과정에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는 시민의 집단행동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와 소수 집단에 의한 여론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미래사회는 창의력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체제는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암기위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 왔으나, 제3의 물결에서의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이나 학생들 역시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재량권이 통제된다면 학생들은 인생의 향로에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보다 나은 길을 선택할 방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

청소년은 더 이상 위험하거나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은 중요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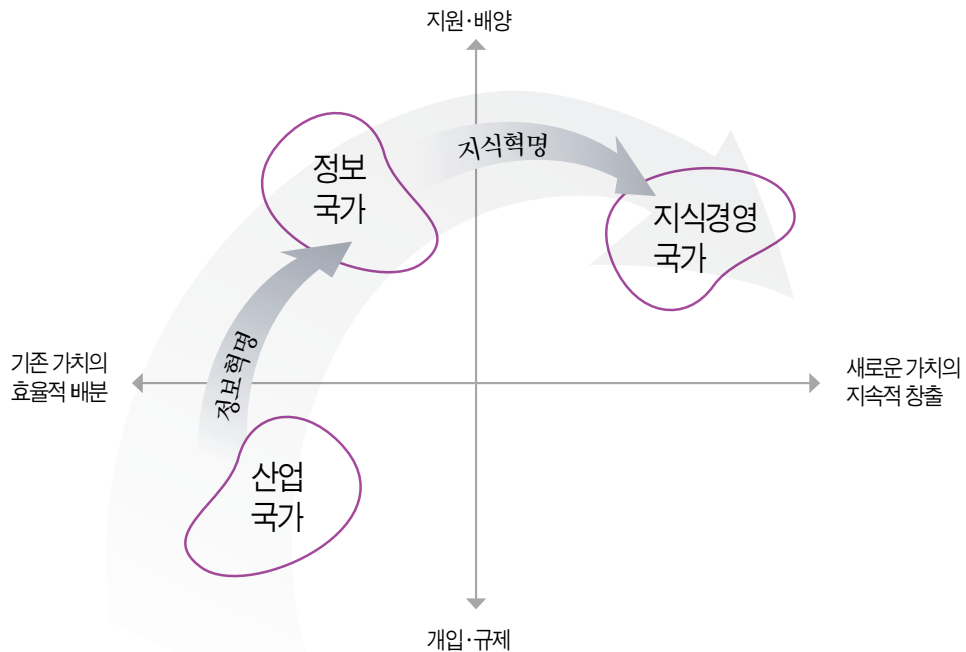
※ 미국의 시민운동(Civil Rights Movement)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케이스의 하나로 백인 남자에게 버스에서 그녀의 자리를 내 주기를 거부한 15세의 소녀, 고등학교 재학 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빌게이츠 등은 청소년이 무능력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세대는 청소년이 올바른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Citizenship)과 참여권을 주는 데 있어 주저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여성의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청소년이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거나 어느 정도 조직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참여하는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선택 혹은 실제적인 결정 권한에 관한 상호작용은 거의 없다. 청소년의 관점과 대표성을 얻

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위원회를 만들고 있지만 청소년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듣고 반영하려는 시도는 아직 요원하다.

오히려 월드컵, 대선 등의 청소년 참여 열기는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사고가 미성숙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고정 관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로 결집하는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기존의 관습이나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산업구조는 정보화에 기초한 IT 관련 산업, 생명공학, 우주항공, 로봇생활화 등과 같이 기성세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도전정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한 명의 젊은 인력이다수의 실버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현안과제를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의 힘이 아니면 국가경쟁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호대상이거나 수혜자가 아니다. 이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세력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단순한 동정심이나 미래 사회의 준비세력으로 간주할 때 우리사회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 이들은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소비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진정한 파트너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하고 학습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정열을 쏟을 일터가 있을 때 우리 사회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변모하는 세계시적 흐름을 감지하여 이들과 공생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역이자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멘토링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계층의 인력자원이 취약 아동·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전달체계를 체계화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취약 아동·청소년 소득층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인적자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층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지역사회기관, 전문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봉사활동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멘토링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취약 아동·청소년의 돌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단위 멘토링 봉사활동의 제도화 및 지원방안

첫째, 지역단위 멘토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참여기관 및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멘토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 학교에서 대학생 멘토링 업무를 전담 지도할 수 있는 전담 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연구모임,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실무자나 전문가들, 교사 및 교수와 지도자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멘토 활동에 대한 협조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하여 민간차원에서도 멘토링 봉사활동 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예산부족은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과 격오지에서는 필요한 멘토를 모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몇 지역단위 멘토링 사업이 정부나 민간기업의 지원이 없이 시민단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여, 그 결과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를 검토하고 가용자원을 파악하며, 각 활동에 따른 멘토와 멘티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산정과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멘토링 활동에 간식비는 지원되지만 교재비와 다른 활동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멘토들이 직접 문제지를 복사하거나 단지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활동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멘티의 부모는 멘티에게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멘토링 활동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정보적 지원과 지지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부모의 협조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 접근 실현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멘티의 학교, 교사 및 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박경민, 2008).

(2) 지역사회내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지역사회 학교 및 관련 기관간의 협력관계 형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 좋은 인적자원을 제공해주고,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에 사회문제의 현황 및 실태, 특성 등을 소개하여, 멘토들에게 창조적인 해결방안,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멘티의 해당 학교의 멘토링 담당교사, 멘티의 담임교사 등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경민, 2008). 아동,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사와 부모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람이다. 멘토링 활동을 뒷받침하는 학교 및 교사의 협조가 필요함은 많은 멘토링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방진희, 2005). 멘토 교육을 통해 멘토의 자질과 역량이 갖추어지더라도 멘티의 학교 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멘토링 활동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교사, 멘토링 담당교사 등에게 다양한 물질적,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박경민, 2008).

나아가 사회적 참여활동과 봉사인력에 대하여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대안으로 활동경력인증제 및 승진가산점 부여 등을 포함시킨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사회적 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인력채용 기준이 갈수록 전문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경력인증제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학생들의 미래형 교육과정에 포함된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영역을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멘토링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모델을 적용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사정관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최근 들어 대학입학시험 유형이 대학마다 다양해지고, 선발에 있어서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획일적이고 단편적 지식만 측정하던 과거의 선발 기준들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일들을 컴퓨터와 로봇이 대체하게 되어, 수많은 관료적 지식인들이 새로운 세계적 변화의 물결에 자발적으로 편승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대학입학제도가 많이 개선된 것은 세계적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지식의 단순 암기만으로 극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 당국과 교육 관계자들이 직시해야 한다. 단순 암기만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선진 문물을 답습해오는 것만으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 엘빈토플러는 한국에서의 집단적 학습방법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추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십 년간 외국의 전문가들과 일본의 학부모들, 일본의 수상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교육체제가 창의성을 북돋고, 혁신을 장려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해 왔다. 학교는 획일성을 생산하는 기계가 되어 왔으며,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혁신성은 크게 억압되었다. 하지만 최근 획일성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일본 교육자들이 개인을 위한 교육이라 불리 우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필수적으

로 요구되던 과목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학습 받을 내용을 결정하는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함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이제 우리의 과제는 모방만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이다. 인류 문화의 첨단에선 OECD 회원국들의 동참자로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요구받고 있다.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이면서도, 모든 학생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임을 강요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독서를 많이 하라고 권장하면서, 막상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여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어차피 수학적 시험으로 측정하게 될 지식의 양(암기력 측정)을 반복적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더욱이 내신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내신에 얽매어 현실적으로는 창의적인 학습 습관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말로만 창의적으로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생활하라고 할 뿐이지,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여건을 만들어놓고 있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미래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창의력이 있는 국가가 미래의 주인공이다.” 등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과로서 주지시키고 있지만, 막상 내신제도는 창의력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올가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교 내신제도이다.

고교 내신은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심성을 평가하여 대학입학에 반영하는 것이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다. 심성을 발달시키고 평가하는 방법이 윤리 교과서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을 누가 말했는가 하는 것은 암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심성은 암기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밖으로 이행되는 행동으로 평가 된다(<http://cyworld.com/topsecret21> "교육의 기본취지").

교육제도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고교 내신제도가 아직도 같은 성격으로,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현행 내신제도로 인해서 창의적 학습 환경이 오히려 저해된다고 하는 점과 관련하여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실제적인 부분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의학적인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단, 평가, 치료, 응급구조 등 가족기능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법적 기능까지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원스톱지원센터에 직접 사법기능을 부과하기 어렵다면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과 즉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개선 혹은 제도개선은 전국의 10여 개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제도개선에도 마찬가지로 더욱 강화된 서비스 지원기능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을 아주 무겁게 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지를 애초에 꺾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다.

5. 맺는 말

오늘날 첨단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비롯한 고등정신과 기능을 지닌 인력이 요구된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미래 사회에서 교육의 경쟁력 확보에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과열과외를 막아 필요 이상의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없애 보고자 대학입시제도를 10여 차례 바꾸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근본 문제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과열과외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대학입학제도도 여전히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 부족, 우수학생에 대한 학력위주의 편협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열과외와 전인교육의 부족에 따른 고교 교육의 비정상화 초래, 대학이나 학과의 성격과 특성 등을 무시한 학생 선발 방법 및 평가 도구의 획일성, 봉사활동이나 학교장 추천 등 학력 이외의 전형 자료들에 대한 타당하고 공정한 평가기준의 미비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창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 공교육의 열악한 환경이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특기·적성교육을 학교가 원활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질이 높아져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특유의 교육열은 자기 자식이 남들과는 다른 차별적이고 추가적인 경쟁 무기를 가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교육이 발전된다 하여도 과외수업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학입시 경쟁과 관련이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일류 대학을 나와야 소위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일반적인 가치관에 연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외가 문제가 될 때마다 언급되는 공교육 부실만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 깊게 퍼져 있는 일류병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명문 대학을 떠나 우리의 자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일 중심 사회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자신의 정열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곧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이며 스승의 역할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참고문헌

- 박경민(2008). 저소득가정아동대상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진희(2005).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실천 제4권, 113-142.
- 서울대 멘토링 사업부(2009). '2009 서울대학교 동반자사회 프로그램 - SNU 멘토링 2009년 사업보고서', 서울대 멘토링 사업부.
- 조화순·송경재(2003). '인터넷을 통한 시민정책참여:단일 이슈네트워크의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5호, 197-21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2005년도 정보통신정책방향'.
- <http://cyworld.com/topsecret21> "교육의 기본취지"



미국의 아동 · 가족 지원 정책

“캘리포니아주 아동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서정아 (부연구위원)

I. 서론

이 글은 미국의 정부차원의 아동 · 가족 지원정책 중 아동복지(Child welfare)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 간에 업무 분담, 상호 협력 · 견제체제 구축에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2008년에 필자가 방문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사회서비스부의 업무별 책임자가 제공하여 준 자료를 근거로 한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 통계치나 제시되는 사항들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추가적인 인터넷자료 검색 등으로도 자료의 수준이나 신뢰성에 있어 이 이상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가능한 오래된 통계치는 배제하고 활용하게 되었다. 미국의 다양한 주 중에서도 특히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한 이유는 그곳이 많은 한국 이민자 등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동양적 문화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하는데 비교적 많은 접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곳으로서 점차 다문화사회¹⁾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 가족 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아동복지제도가 아동 · 가족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관련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미국의 아동, 가족 지원 역할분담

미국의 아동복지제도는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의 관련부서, 청소년법원, 민간 사회봉사기관 등 여러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이 모두 아동과 그 가족에게 안전, 영구주거(permanency), 복지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에서는 아동복지제도에 들어오고 나가는 아동에 대한 개별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관장하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법제정, 주정부의 업무감독, 이행상황 검토 등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을 입안, 실시한다. 연방정부는 또한 아동복지 및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자금을 주정부, 카운티, 시, 지방의 공립 및 사립 기관 등에 배정한다.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관장하며 일부 자금을 부담하는 중심적인 연방기관은 미합중국 보건·인간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이다. DHHS 내에서는 아동 및 가족 사무국(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과 의료보조·보호서비스센터(The centers for medicaid and medicare services)가 아동복지제도에 들어오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감독하고 있다.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은 그에 상응(match)하는 주정부의 자금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시 주정부는 카운티 정부에 그에 상응하는 자금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정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복지서비스(CWS) 제도는 가정을 강화, 유지하고 개인적 의무감을 고취하여 자립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연속적 집합체이다. CWS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아동학대나 방임 혐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대처
- 학대나 방임의 피해아동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격리되어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캘리포니아주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DSS)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정부 및 카운티정부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의 부분 자금지원 수령
- 위험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서비스의 개발과 감독
- 가정 외 (위탁)보호 제공자에 대한 허가
- 가정 외 (위탁) 보호 아동 서비스에 사용될 주정부 및 카운티의 자금 확보

- 일부 카운티에서 직접 입양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조사연구
 - 지방 및 주 전체 시범 프로젝트 및 사회복지사를 위한 주 전체 “최선의 업무방법(Best Practice)” 교육 감독 평가
- CDSS 내에는 아동 및 가족서비스과와 지역사회보호감독과가 아동복지 및 위탁보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3. 카운티 정부

카운티는 아동학대 및 방임 해결을 위해 아동이나 그 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정부기관이다. 아동복지제도에 들어오는 아동과 그 가족은 카운티 차원의 여러 부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카운티의 사회서비스 부서나 기관은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과(Child Welfare Division)를 통해 해당 지방의 아동복지 및 위탁보호서비스를 관리하고, 일부 자금을 부담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동복지과는 아동학대신고, 조사, 가정 조사 및 평가, 사건관리 및 가정해체를 막기 위한 기타 서비스, 위탁아동의 위탁 및 모니터링, 입양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 카운티 공중보건부(County Public Health Department)는 카운티와 커뮤니티 내 병원에서 적격 위탁아동에게 예방, 진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카운티들은 또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신체 건강, 행동, 치과적, 발달적 필요를 관리하기 위해 공중보건간호사(PHNs)를 감독한다.
- 카운티 정신보건부(County Mental Health Department)는 아동복지제도에 들어온 아동과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카운티 알코올 및 마약 치료서비스부(County Alcohol and Drug Treatment Program Department)는 카운티나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중독치료, 외래환자, 재가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소년보호법원(Juvenile/dependency court)은 아동복지기관의 청원으로 심리를 열어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동이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있어도 안전할지, 아니면 아동을 격리시킨 다음 보호와 보육책임을 사회봉사기관에 위임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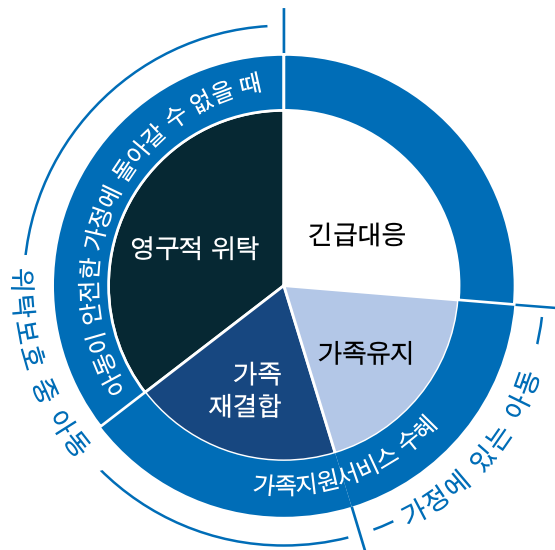
카운티 아동복지부서는 연방 및 주정부 법규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s: CWS)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아동학대 및 방임 해결,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개입이나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4개 서비스 부문은 긴급대응, 가족유지, 가족 재결합, 영구위탁이다. 이는 공법 96-272에서 요구하는 연방 요건에 따라 1982에 제정된 주법(상원법 14)을 통해 설정되었다.

III. 캘리포니아주의 아동, 가족 지원체계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아동복지제도²⁾는 연방법에 근거, 최대한 가족을 유지하며 아동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83년에 처음 수립되었다. 주법(州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아동이 아동복지제도에 들어오는 경로와 아동복지제도 아동과 가족의 지원방법,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경우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한시적 개입을 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카운티가 주정부의 감독 하에 자체적인 아동복지프로그램을 관리하는 11개 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법제정과 연방자금 확보를 담당하고 카운티의 아동복지기관들은 아동학대와 방치 신고가 있을 시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의 아동복지제도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3개의 연속적 단계로 제공되는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캘리포니아 아동복지서비스 체계의 4가지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아동·가족지원서비스

□ 1단계: 최초 접촉

- ▷ 긴급대응서비스: 카운티는 아동의 학대 또는 방임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심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이 보호양육되거나 그 가족이 30일간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²⁾미국에서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동복지(child welfare)”라는 용어는 주로 학대 혹은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일련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동복지(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가족지원, 일반아동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등)는 주로 아동 및 가족 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 2단계: 가족지원서비스

- ▷ 가족유지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에게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동의 사회복지사의 감독 하에 가정 내에 머무른다.
- ▷ 가족재결합서비스: 아동은 일시적으로 위탁보호를 받게 되고 이 동안 부모는 아동의 격리를 초래하게 된 환경에 대해 개선하도록 요구된다(최대 1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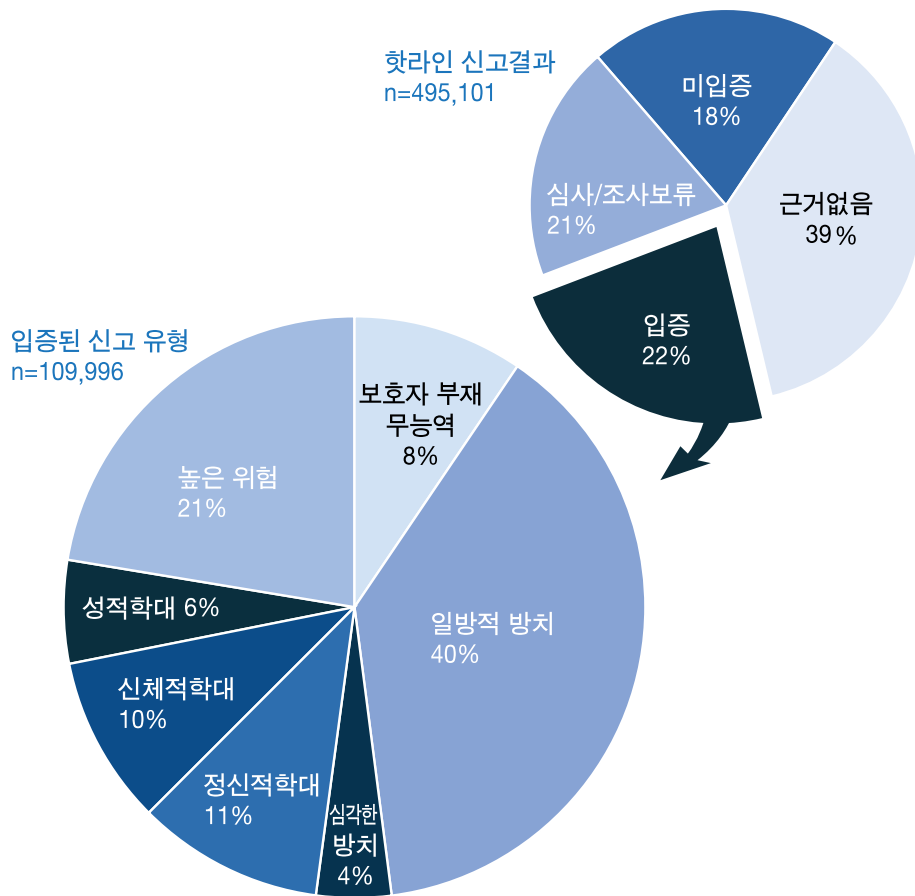
□ 3단계: 영구적 위탁

- ▷ 영구적 위탁 서비스: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위탁가정을 찾게 된다. 지역의 아동복지기관은 그들의 판단에 의거 일정한 범주 내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최근의 전국적인 추세는 아동복지서비스를 보다 두드러지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역동적인 체계로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로운 책임체계가 수립되어 실적 데이터를 추적하고 아동, 가족은 물론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 안전에 관한 다양한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발전, 개선시키고 있다.

1. 긴급대응

긴급대응의 목적은 아동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체계의 초기 유입은 카운티 아동복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긴급대응프로그램에 아동이 신고 됨으로서 시작된다. 신고의 거의 대부분은 카운티가 운영하는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고의 절반정도는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사, 상담가, 사진현상소 등과 같은 ‘의무적 신고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약 50만 여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카운티 핫라인에 접수되고 있다.

- 1) 심사 및 조사(Screening and Investigation): 만약 상담전화를 심사한 사회복지사가 아동이 즉각적인 혹은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하면 주법에 따라 즉각적인 개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사회복지사는 10일 이내에 해당아동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사건을 종결하거나 가족을 자발적 서비스나 지역사회자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2) 신고사실의 입증(Substantiated Reports): 접수된 신고의 1/4정도에서 사회복지사는 신고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뢰성 있는 증거를 발견한다. 증거를 발견한 신고의 절반 정도는 방임 혹은 보호자의 무능력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필요한 경우 아동을 그들에게 적절한 행동의 과정을 사정하는 동안 단기간 보호양육(protective custody)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최장 60일간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고사실이 입증된 경우 카운티의 개입이 계속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그림2] 핫라인 신고결과 및 유형에 따른 신고사실의 입증(2006. 6 기준)

2. 가족유지

가족유지의 목표는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이나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지는 않은 경우 그 가족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가정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정유지 서비스는 6개월간 제공되며 사례에 따라 6개월씩 연장될 수 있다.

□ 가족지원서비스의 유형

카운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그 가족에게 제공한다.

- ▷ 상담(Counseling)
- ▷ 가족휴식제공(Respite care)
- ▷ 긴급주거지원(Emergency Housing)

- ▷ 가정폭력중재(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 ▷ 약물남용에 대한 개입(Substance Abuse Treatment)
- ▷ 가정 내 양육자 제공(In-home Caregivers)
- ▷ 부모교육(Parenting Education)

3. 가족재결합

가족재결합의 목표는 가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여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족서비스는 이전에 언급한 가족유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18개월 동안 부모가 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만일 부모가 재결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아동이 일시적 위탁보호(foster care)에서 벗어나 영구적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방식을 가르쳐 “병행적 계획(concurrent planning)”이라고 부른다.

※ 일시적 위탁보호(Foster care)란?

일시적 위탁보호는 아동복지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위탁보호는 부모가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시적 해결책으로 간주된다.

□ 일시적 위탁보호의 유형

연방법은 위탁아동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위탁이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이나 단체시설, 치료시설, 긴급거처에 맡기기 전에 우선 친족에게 위탁이 가능한지 의뢰하여야 한다. 친족이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족이 학대 또는 방임된 아동에게 필요한 복합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위탁보호 제공자를 섭외, 의뢰하여야 한다.

주정부가 승인한 위탁보호 제공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래로 갈수록 보호가 보다 전문화되고 엄격한 형태를 띠게 된다.

- ▷ 친족보호(Kinship care): 아동의 친족이 보호 · 양육을 제공한다. 친족보호 가정은 다른 위탁가정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이 요구된다.
- ▷ 일시적 위탁가정(Foster family homes): 최대 6명까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개인 가정이다. 형제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가족을 면담하고 주택에 대해 위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위탁 전 교육을 받으며 지급받는 양육비 이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 ▷ 위탁가족기관(Foster Family Agencies: FFA) 특수아동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에게 치료

또는 치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FFA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카운티 사회복지사가 법원에 대한 권고 사항 등 관련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 공동가정(Group homes): 이들 가정은 구조화된 환경에서 24시간 지속적인 보호감독을 실시한다. 공동가정에는 최대 6명까지만 위탁보호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가정에서부터 많은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 공동가정은 자체 운영 계획에 아동의 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 지역사회치료시설(Community treatment facilities): 공동가정에서는 대처가 불가능한 심각한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병원보다는 덜 구속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회서비스부와 정신보건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캘리포니아에는 이러한 시설이 5개소 있다.

□ 일시적 위탁보호의 결과

아동복지체계에 들어온 아동 10명중 7명이 일시적 위탁보호를 경험한다. 이러한 아동들의 1/2이상(55%)은 가족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아동의 대부분은 입양(20%)되거나 법적 후견인(일반적으로 친족)과 함께 생활(7%)하게 된다(2006년 6월 기준).

비록 위탁보호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의도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아동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위탁보호하에 생활하게 된다. 이들 중 20%는 1번 이상 위탁보호체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며, 비교적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의 아동(12%)이 위탁보호하에서 18세가 되어 연령초과로 위탁보호를 떠나게 된다(2006년 6월 기준).

4. 영구적 위탁

모든 아동복지 서비스의 목표는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영구적 위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가족과의 재결합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거나 가족이 재결합하려는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사는 아동에게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입양(Adoption): 입양은 친부모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그 권리와 의무를 입양부모에게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입양은 공공 및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 ▷ 법적후견인(Legal guardianship): 법적 후견인 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대신하여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을 법원이 지정한 성인(후견인)에게 대신 부여하는 것이다. 후견인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대한 결정을 대신하며 아동에 대한 법적 지원의무는 여전히 친부모에게 남아있다. 법적 후견인제도는 영구적인 것이 아

니다. 후견인이 사임할 수 있으며 부모는 법원에 양육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 자격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종결된다.

- ▷ 장기위탁보호(Long-term foster care): 아동복지기관이 가족을 재결합시키지 못하거나 입양이 불가능할 때, 법적 후견인이 나서지 않을 경우 다른 영구적 생활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은 친척, 친척 외, 공동가정 등에 장기적으로 위탁되어 보호될 수 있다.

위 사항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친족후견인 지원 및 입양 지원을 실시한다.

□ 친족후견인 지원 및 입양 지원

캘리포니아에서는 장기 위탁보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친족후견인 지원 및 입양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친척이나 기타 성인이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는 임시간호, 보육지원, 정신건강, 교육적 평가, 학습지도, 상담 등이 있다. KinGAP 프로그램은 법적 후견인이 되는 친족에게 월정액을 제공한다. 형제, 연령이 높은 아동, 특수아동을 입양하는 친족이나 위탁부모에게도 매월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IV. 아동·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 노력

학대 및 방임과 관련한 아동, 가족은 아래와 같은 매우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 상호,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1. 다양한 주정부 차원의 기관들의 참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주정부 아동·청소년기관 합동팀(The state interagency team for children and youth)”은 주정부 10개 부서의 부국장들로 구성되어 재정 흐름과 자원에 대한 기관 공동의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팀은 최근 부모의 약물문제, 아동 안전, 신체적 정신적 건강, 교육 등을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카운티 개선과 지역사회 참여

카운티들은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함은 물론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

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정부차원의 개혁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결과 및 책임제도(Outcome and accountability system: AB636)

캘리포니아의 아동복지조직들은 2003년부터 구체적인 실적 목표의 진행정도를 측정하는 분기별 데이터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카운티 아동복지과는 각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개선계획(System Improvement Plan: SIP)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책임제도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아동복지의 요구를 해결함에 있어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 주요 제도 및 체계 개선(Key System Improvement): 11개 시범 카운티에서 주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음의 3개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 ▷ 주정부 안전평가(Statewide Safety Assessment): 위험 · 안전정도에 대한 일관된 평가를 위해 표준화되고 포괄적인 사정 도구 활용.
- ▷ 차별화된 대응(Differential Response): 아동복지기관이 가능한 학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보다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기관이 공동으로 협력.
- ▷ 영구적 주거 및 청소년 이행(Permanency and Youth transition): 위탁 청소년의 의사결정과 미래 계획에 그들에게 중요한 또래 청소년이나 성인을 참여시킴.

3. 자선조직의 기여

민간 자선조직은 주정부 아동복지서비스의 결과 개선에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박애주의적 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선조직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의 아동복지제도와 아동복지제도 내의 아동, 청소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2,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동복지 결과 및 책임제도(AB636)에 의한 아동의 안전, 영구주거, 복지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된 금액은 약 1,03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시도에는 교육, 기술지원, 또래 학습, 보조금, 그리고 아동복지업무와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혁신을 고취하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포함되고 있다. 박애주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매칭펀드 형식의 재원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향상펀드(Child Welfare Services Improvement Fund)”제도를 제정하였다.

V. 미국의 연방정부 · 주정부 차원의 아동 · 가족 지원법

위의 다양한 아동 · 가족지원제도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법에 근거하여 실행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아동 · 가족 지원의 근간이 되는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의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차원의 주요 아동 · 가족지원법

-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 1974: CAPTA): CAPTA는 주정부로 하여금 아동학대신고법을 제정하고 의무적 신고자가 인지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상황이나 조건을 정의하며, 청소년 · 가정법원이 아동을 유치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하고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형태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 인디언아동복지법(Indian Child Welfare Act(ICWA), 1978): ICWA는 인디언 아동의 보호, 입양, 후견인, 친권행위의 중지, 가출 · 무단결석 문제, 자원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인디언 아동이 관련된 위탁은 가능한 부족법원의 심리를 통해야 한다.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1980): 이 법은 불필요한 가정 외 위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과 친척에의 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가능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의 안전한 재결합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고 특수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금을 허용하고 있다. 1996년 7월에 제정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요건에 부합하는 아동만이 이런 항목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자립생활 프로그램법(Independent Living Program Act, 1986): 동법은 16세 이상 위탁아동의 자립을 촉진하고 이들이 18세가 되면 성인기로의 이행(transition)을 지원한다.
- 가족유지 및 가족지원서비스프로그램(Family Preservation and Family Support Services Program, 1993)과 안전 · 안정 가정향상법(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Act): 동법들은 가족유지 및 지역사회 기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해 주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융통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족유지 및 가족지원서비스프로그램은 1997년에 안전 · 안정 가정향상법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아동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 혹은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연방자금에 근거가 된다.
- 다인종 위탁법(Multi-Ethnic Placement Act(MEPA), 1994)와 인종 간 위탁조항(Inter-Ethnic Placement Provisions, 1996): MEPA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아동의 위탁을 지연,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주정부에 대상 아동의 민족과 인종을 반영한 입양 및 위탁 가정을 물색할 것을 요구한다. 인종 간 위탁조항(PL 104-188)은 MEPA를 개정하고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입양이나 위탁이 지연 또는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강화한 것이다.
- 입양 및 안전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ASFA), 1997): 동법은 가정의 유지보다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주정부가 영구주거계획과 입양을 촉진하도록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우를 지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주정부로 하여금 서비스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연방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DHHS(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미국 연방정부 부처)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결과와 주정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위탁보호 자립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1999): 동법은 자립생활기술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지원을 두 배로 늘리는 것과 주정부가 아동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21세까지의 의료보조제도(Medicaid) 보장을 연장하기 위해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정 외 보육을 받고 있는 모든 청소년의 ILP 서비스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2.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의 주요 아동·가족지원법

- 상원법(SB) 14(1982년 법령 제 978장): 동법은 주정부에 사회서비스부와 카운티 복지부서들을 통해 주 전체에 걸쳐 공공 아동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카운티 복지부는 긴급대응, 가정유지, 가족 재결합, 영구위탁 등 4개 부문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SB 243(1987년 법령 제 1485장): 동법은 아동이 처해 있는 위험도에 따라 친권박탈 및 아동격리를 실시하고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한다. 또한 가족유지보전을 시스템의 주된 목표로 제정하고 아동의 친족위탁 우선권을 명시한다.
- SB 370(1989년 법령 제 1294장): 위탁보호 공동가정의 보육비 체계를 정하고 자동 아동복지서비스, 사건관리시스템(CWS/CMS)에 대해 규정한다.
- 의회법(AB) 948(1991년 법령 제 91장): 위탁보호와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카운티의 비용 부담을 확대하도록 규정한다.
- AB 3364(1994년 법령 제 961장): 연방정부의 요건에 맞춘 캘리포니아 가족유지보전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정, 명시하고 있다.
- AB 1193(1997년 법령 제794장): 청소년법원에 의해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친족에 관한 사항과 학대, 방치, 비행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친족에게 지역사회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친지지원서비스를 규정한다.
- AB 1544(1997년 법령 제793장): “협력계획” 을 의무화하고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없는 아동이 친족 집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규정들을 담고 있다.
- AB 2773(1998년 법령 제1956장): 입양 및 가족 안전에 대한 연방법에 기반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실시하는 관련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SB 163(1998년 법령 제795장): 가정 외 위탁의 감소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아동의 가족과 보호단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랩어라운드(wrap-around)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카운티가 시범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SB 933(1998년 법령 제311장): 공동가정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위탁보호 민원 프로그램을 수립, 제시하고 있다.



VI. 결론: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적용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나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상이성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상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선진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가 고민해봐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지적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2/3이상은 부모가 생존하고 있다. 가족해체나 심각한 빈곤을 겪은 부모는 국가나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양육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아동들은 부모, 친척, 주위사람들에 의해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지게 된다. 이전에 흔히 생각했던 고아원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시설은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어려움이 그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금만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 주고 교육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아동양육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부모들이 너무 쉽게 아동양육을 포기하는 상황은 많은 아동복지전문가들이 개탄하고 있는 바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와 유기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거나 긴급 지원하더라도 아동이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역할을 정상화,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8개월이며 이 시간은 전문적 노력으로 충분히 가족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 기간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아동양육을 포기했던 부모도 적절한 지원과 도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아동양육을 스스로의 역할로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IMF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또한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교육이나 직업알선, 사회경제적 상황변화로 얼마든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련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기는 했더라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형제와 함께 생활하는 것일 수 있다. 가족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을 빼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아동은 물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의 가족지원 서비스(가족유지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는 그러한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제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미국의 경우 아동복지지원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는 우리나라의 군(郡)단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카운티(county) 정부이다. 카운티는 아동·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관할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카운티 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카운티 정부가 서비스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카운티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나 방향, 재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연방정부, 주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 가족에 관한 다양한 사업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

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따라 관련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적절한 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의 차이는 곧 지원의 양적 질적 수준 차이로 드러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빈곤층 등 서비스대상이 많은 지역에서 예산부족으로 더 열악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비스수준의 표준화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되는 자원불균형 또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와 개인, 가족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시대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사회 역할의 강조가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칫 국가가 제도적, 재정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선조직의 기여가 두드러진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 다양한 전문가적, 행정적, 법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만 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가족지원정책은 각 부처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되어진다. 상대적으로 긴 아동복지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분야 간 협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주정부 아동·청소년기관 합동팀(The state interagency team for children and youth)”은 주정부 10개 부서의 부국장들로 구성되어 재정 흐름과 자원에 대한 기관 공동의 접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아동은 물론 가족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맞는 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아동·가족지원을 위해 이러한 구체적 기구들을 통한 협력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동,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사례가 가지는 의미는 잘만 활용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명심해야 할 사항은 아동,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국사례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적으로 따라하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아동, 가족의 욕구와 행복에 반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California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and Families(2002). Understanding the Child Welfare System in California, California: California Center for Research in Women and Families.

California State Government(2007). California's System to Protect Children and Strengthen Families, Sacramento: California State Government.



청소년 멘토링,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김지연 (부연구위원)

바야흐로 멘토링의 대 유행 시대이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사회지도층의 ‘오블리스 노블리제’ 실천에 대한 VIP의 언급과 나눔 문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을 ‘시도’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멘토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 왕의 친구인 멘토르(Mentor)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로, 멘토르가 전장에 나가는 오디세우스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텔레마커스를 20여 년간 양육하면서 그의 보호자, 스승, 친구, 지도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텔레마커스를 훌륭한 왕재(王才)로 성장시켰다는 일화에서 유래한다. 이후 멘토링은 1970년대 북미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면서 재조명 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교육계, 종교계, 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방법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이미 ‘청소년 범죄 및 비행방지법’에 멘토링(part G)을 포함하였고 청소년 비행예방과 선도 전략으로 전국단위의 멘토링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의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요약하면 한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목표를 실현하는 활동, 친밀하고 상호적인 일대일 관계를 제공하는 활동, 심리·정서·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인간개발 방법, 멘토가 역할모델이 되어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 등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즉,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멘토링의 특

※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성이 지속성, 관계중심, 역할모델, 성장이라는 점에서 멘토링은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멘토가 역할모델이 되면 멘토, 멘티가 모두 성장하는 활동'이라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근래 유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가운데 지속적이지 않거나 멘토가 멘티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활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보다 성적에만 관심 있는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멘토링이라 보기 어렵다.

멘토링의 어원을 보면 일종의 '왕자 교육' 방법인 셈이다. 멘토르는 한 사람을 위하여 20여 년 동안 정성을 쏟았고 결국 텔레마커스는 왕의 자질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즉, 멘토링에는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왕자의 스승으로서 멘토의 자질과 역할이 성패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멘토, 멘티의 결연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멘토 양성과 자질 개발을 위한 노력과 과정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멘토링에 정작 '관계'는 없고 '프로그램'만 나열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멘토링이 여전히 민간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멘토 양성에 자원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멘토링의 의미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멘티를 '선발'해야 하고 그마저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멘토링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는 외국의 사례들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멘토링은 아동·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학습의 과정이며, 비행을 예방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개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멘토의 성장과 인식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 국가가 적

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멘토링은 멘티와 멘토가 하는 활동이지만, 멘티와 멘토 둘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이 또한 멘토링이다. 이들을 매칭하고, 멘토가 소진(burn out)되지 않도록 끊임 없이 동기부여하고, 활동을 평가하고, 환류(feedback)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멘토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의를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멘토는 많다. 물론 멘토를 필요로 하는 멘티는 더욱 많을 것이다. 다만 이들을 발굴하여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돕고 멘토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멘토링의 범람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여건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정부가 적극성을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발간물 소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 연구목적 :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유입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 및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영역과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함.
- 각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현행 법·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성매매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 정책 등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과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 분석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 국내외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현황 및 관련법제 분석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대책방안 및 정책 로드맵 제시

아동청소년 안전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 연구목적 :

-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집주변(Home Zone), 통학로, 학교주변(School Zone)의 안전도를 기준으로 지역중심의 구체적인 아동·청소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의 안전수준 및 위험현상을, 그렇지 않는 지역이나 계층 및 가정과 비교하여 조명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잠재적 위험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시

| 주요내용 :

- 아동·청소년의 거주 및 활동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의 물리적 위해도, 그리고 안전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활동 공간(집주변, 통학로, 학교주변)별 안전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도, 사고경험도, 유익 및 유해환경접촉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원인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활동 공간 특성을 조사하여 활동 공간별 안전 실태와 정책자료 제시,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사고경험과 활동공간의 안전수준을 분석함.
-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사고나 위험 수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아동·청소년 안전대책의 중요 변수가 지역적, 용도구역이며,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에 아동·청소년 안전분야는 토지이용구역에 따라 안전정책을 추진해야함.
- 지역단위, 계층단위, 가정단위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나 위험한 상황은 일정부분 공통적인 유사한 형태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단위는 매우 유사하므로 안전분야 정책의 기반은 지역단위 포괄적 정책이 요구됨
- 지역별 안전도를 보면 통학환경안전도는 농어촌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도시 내 주거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집주변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도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농어촌지역이 낮게 나타났고, 학교주변 안전도는 도시 내 상업지역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용도구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과 도시 내 상업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지역별 유해환경 접촉도에서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노출도가 높으며, 유익시설 접촉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상업지역이 높음.

I 단행본

No. 1 서 명 :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저 자 : 노대명, 홍경준, 최승아, 전지현, 박은영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년 : 2009

No. 2 서 명 : 육체의 탄생 : 몸 그 안에 새겨진 근대의 자국
저 자 : 이영아
출판사 : 이담복스
출판년 : 2008

『육체의 탄생 | 몸 그 안에 새겨진 근대의 자국』.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자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어떤 몸을 가졌는가?'가 그 개인의 능력과 지위, 나아가 품성까지 규정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이어트 중독, 거식증, 성형 중독이라는 잘못된 유행을 낳기도 하였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토록 육체에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을까?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100년 전 조선으로 떠난다. 아름다운 몸매와 얼굴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30대의 여성 학자가 개화기 조선 사회 곳곳을 누비며 '육체에 사로잡혀 있던 나'로부터 출발한 연구를 시작한다. 이 책은 우리가 육체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그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들은 서양 문명과 제국주의를 맞닥뜨린 조선이 육체, 육체적인 것을 인식하고, 탐구하고, 관리하고, 욕망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목격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중이 즐겨 읽던 신문과 잡지, 소설 등에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난다

No. 3 서 명 : 좌우파 사전 :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저 자 : 구갑우 외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출판년 : 2010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을 만나는 『좌우파 사전』. 인간과 사회의 본성을 바라보는 대립적 시선인 '좌파'와 '우파'를 통해 한국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를 짚어질갈 중진 학자 14명이 참여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저술했다. 특히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쟁점을 망라하면서 그것에 대한 개념과 현실, 그리고 관련 사건 등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접근하고 해설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주장도 요약한다. 아울러 좌파와 우파의 주장이 대립하는 본질과 전망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모순적 대립의 객관적 원인도 파헤쳐간다. 좌파와 우파 간의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쟁의 발전을 위한 참고서가 되어줄 것이다.

No. 4 서 명 : 민주주의 쇠퇴 :미국 시민생활의 변모

저 자 : 테다 스카치폴 지음, 강승훈 옮김

출판사 : 한울

출판년 : 2010

미국 하버드 대학 Victor S. Thomas Professor of Government and Sociology 테다 스카치폴의 『민주주의의 쇠퇴』.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미국 시민생활은 갑작스럽게 변화했다. '참여'가 사라지고 '경영'만 남아버린 것이다. 이 책은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미국 시민생활의 변화와 그것의 원인을 살펴본다. 미국 시민생활의 변화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준 영향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시민생활의 변화를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닌 쇠퇴로 규명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No. 5 서 명 : CEO를 감동시키는 프레젠테이션

저 자 : 박혁중

출판사 : 미래와경영

출판년 : 2009

이 책은 CEO나 상사, 또는 거래처 등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저자는 가상의 인물 Mr. Big을 등장시켰다. Mr. Big은 어느 조직(단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다. 잘못된 점이나 불편한 점을 거침없이 지적하고 질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나 회사의 고위 임원 혹은 대표이사를 통칭한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에서 반드시 설득해야만 하는 사람, 바로 Mr. Big이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빛난다. 본문은 이 Mr. Big을 내세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뒷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과 싫어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1부에서는 Mr. Big이 누구인지를 분석한다. 2부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효과적인 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3부에서는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슬라이드에 관해 설명한다. 4부에서는 실행단계에서 명심해야 할 내용들을 전달한다. 긴장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연습 방법, 청중과 눈맞춤하는 요령, 올바른 발표 자세, 말의 강약과 제스처의 활용 방법, 청중과 교감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No. 6 서 명 :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오늘날 일본가족의 재구조화

저 자 : 야마다 마사히로 지음, 장화경 옮김

출판사 : 그린비

출판년 : 2010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은 1970년대부터 진행된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미혼화 현상'을 '전업주부를 포기할 수 없는 여성들의 문제'로,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돌봄 노동의 성편향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하며 독자들에게 가족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No. 7 서 명 : GREAT COMPANY 500 :세계 명문기업들의 흥망성쇠

저 자 : 래리 슈웨이카트, 린 피어슨 도티 지음, 장세현 옮김

출판사 : 타임비즈

출판년 : 2010

현대 비즈니스를 탄생시킨 세계 명문기업들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GREAT COMPANY 500 - 세계 명문기업들의 흥망성쇠』. 400여 년에 달하는 비즈니스 역사를 훑으면서 정점이 되었던 사회적 사건과 동향은 물론, 그것에 걸맞게 새롭게 태동한 산업의 변천을 내밀하게 따라가고 있다. 특히 세계 명문기업 500개의 흥망성쇠를 소개한다. 웰치, 켈로그, 카네기, 노드스트롬 등 세계 명문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현대 비즈니스를 탄생시키기까지의 비장하고 장엄한 모험담을 '인물'에 초점을 맞춰 풍성하게 담아냈다. 아울러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 세상에 내놓은 제품 등을 엿본다. 경영자와 기업인에게 시대와 호흡하며 그것의 박동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No. 8 서 명 :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저 자 :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동노, 이교선, 이진준, 한기욱 옮김

출판사 : 창비

출판년 : 2010

80년대 운동권을 사로잡았던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 브루스 커밍스(시카고대 교수)의 애정어린 '한국론'. 1977년 워싱턴에서 비밀해제된 자료, 관계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한 우리의 현대사로 최근의 DJ 정부까지를 다루고 있다.한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서구인의 편견을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No. 9 서 명 : 나는 상류인가 하류인가?

저 자 : 미우라 아쓰시, 오미우리광고회사 지음, 이선희 옮김

출판사 : 바움

출판년 : 2009

일본 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계층화 의식과 계층의 생활 실태를 분석한 『나는 상류인가 하류인가』. 이 책은 현대 일본 여성들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직업관, 인생관, 생활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적 계층은 어디에 속하는지, 또 자신이 생각한 경제적 계층 구분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가치관 및 생활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여성들의 삶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보다는 경제사정과 고용시장, 부모와 남편의 소득, 직업, 학력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말한다. 곧 계층이 높은 여성은 그만큼 의욕적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는가 하면, 계층이 낮은 여성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여성들의 계층화 의식과 생활 실태는 궁극적으로 '돈'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No. 10 서 명: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저 자: 콜린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출판사: 미지북스

출판년: 2009

이 책은 현대의 민주주의가 직면하는 문제를 '고전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포스트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면서 그것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포스트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의 보편적 요구보다는 기업 엘리트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더 잘 관철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요인과 진행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 계급의 쇠퇴로 인해 정당 정치가 계급 관계를 더 이상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고 글로벌 자본주의의 부상과 함께 다국적 기업이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강력한 제도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현대 정치가 이러한 포스트민주주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거대 기업을 제어하고, 보편적 시민권을 지켜내며, 포스트민주주의에 대항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No. 11 서 명: 일어나라 인권 OTL:대한민국 인권을 보는 여섯 개의 시선

저 자: 한겨레21편집부

출판사: 한겨레출판

출판년: 2010

이 책은 노동자, 외국인, 장애인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참과 눈물이 담긴 30가지 이야기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도에 〈한겨레21〉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총 30회에 걸쳐 '인권OTL'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의 현장을 취재, 연재한 것을 묶은 것이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인권 문제를 소상히 바라보면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다.

No. 12 서 명: 쉘위토크: Shall we Talk

저 자: 지승호

출판사: 시대의창

출판년: 2010

오늘날 한국사회는 갈등을 넘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여기고 있으며, 저자는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염려의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 대화의 부재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인터뷰를 하여 구성한 책으로, 한국사회에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말한다. 김미화, 김어준, 우석훈, 장하준, 조한혜정 등 사회 각계각층의 8명의 인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에, 그에 대한 대안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의 눈', '도전과 감정이입', '재미와 휴머니티의 조합', '다양성의 인정', '20대의 혁명', '사민주의', '상생하는 돌봄사회', '디지털 유목민' 등을 통해 이념간,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한다.

No.1 서명: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출판사: ELSEVIER

출판년: v.32, n.11

Assets and child well-being in developed countries/Asset holding and educational attainment among African American youth/Assets and child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research review/City and community innovations in CDAs: The role of community-based organizations/Tribal experience with children's accounts/The big lift: Federal policy efforts to create Child Development Accounts/The Child Trust Fund in the UK: How might opening rates by parents be increased?/A new approach to promote economic independence among at-risk children: Child Development Accounts (CDAs) in Korea/Assets building Puerto Rico: A study of Children's Development Accounts in Caguas/Overview of Child Development Accounts in developing countries/Child Development Accounts and saving for children's future: Do financial incentives matter?/Young children's perceptions of college and saving: Potential role of Child Development Accounts/Assets and educational outcomes: Child Development Accounts (CDAs) for orphaned children in Uganda/Youth and savings in AssetsAfrica/Perspective from the left Children's saving accounts, mobility, and inequality/Perspective from the Right Building a cross-ideological consensus for Child Development Accounts/Policy context for CDAs over the next 20 years/CDA legislativ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Research on assets for children and youth: Reflections on the past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No.2 서명: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출판사: Springer

출판년: v.39, n.11(November 2010)

Meaning in Life as a Mediator of Ethnic Identity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Latin, Asian, and European American Backgrounds/Profiles of a Developmental Asset: youth Purpose as a Context for Hope and WellBeing/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Approaches to Studying Mexican-Origin Mother-Daughter Cultural Orientation Dissonance/Shared Agency with Parents for Educational Goals: Ethnic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College Adjustment/Marital Attitude Trajectories Across Adolescence/Friendship and Adjustment: A Focus on Mixed-Grade Friendships/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and Peer Relations in Early Adolescence: Gender-Specific Predictors of Peer Acceptance/Why do Adolescents Gather Information or Stick to Parental Norms? Examining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es Behind Adolescents' Identity Style/Self-Regulation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 with Mother-Son Relationship Quality and Maternal Regulatory Support and Antagonism/Participating in Sport and Music Activities in Adolescence: The Role of Activity Participation and Motivational Beliefs During Elementary School

No.3 서 명 :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출판사 : Sage Publications

출판년 : v.37, n.3

Stability of Career Aspirations: A Longitudinal Test of Gottfredson's Theory/Autoethnography in Vocational Psychology: Wearing Your Class on Your Sleeve/Career Maturity and Foreclosure in Student Athletes, Fine Arts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Temporary Employment and Perceived Employability: Mediation by Impression Management

No.4 서 명 : Human Development

출판사 : KARGER

출판년 : v.54, n.4

Should We Trust Experiments on Trust?/Identity as Burden or Benefit? Youth, Historical Narrative, and the Legacy of Political Conflict/The Shifting Complex of Identity: Issues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nge Informing the narrative Identities of Conflict Youth/Emergence of Young Children's Presentational Self in Daily Conversation and Its Semiotic Foundation/Re-presenting the Presentational Self

No.5 서 명 : Child Development

출판사 : Wiley-Blackwell

출판년 : v.81, n.5

Sex Categoriz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Increasing Utilization of Sexually Dimorphic cues/Cognitive Flexibility in Drawings of Bilingual children/Bridging the Gap: Solving Spatial Means-Ends Relations in a Locomotor Task/What Paradox? Referential cues Allow for Infant Use of Phonetic Detail in Word Learning/Tolerance of Practices by Muslim Actors: An Integrative Social-Developmental Perspective/The Development of core Cognitive skills in Autism: A 3-Year Prospective study/Gender Differences in Spatial Ability of Young Children: The Effects of Training and Processing Strategies/Interracial and Intra-racial contact, School-Level Diversity, and change in Racial Identity Statu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Do Adolescents and Parents Reconstruct Memories About Their Conflict as a Function of Adolescent Attachment?/Child Care and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Among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in Middle Childhood/Children's Understanding of Ordinary and Extraordinary Minds/Maternal Discussions of Mental States and Behaviors: Relations to Emotion Situation Knowledge in European American and Immigrant Chinese Children/The Effects of Maltreatment and Neuroendocrine Regulation on Memory Performance/The Contributions of Numerosity and Domain-General Abilities to School Readiness/Children's Classroom Engagement and School Readiness Gains in Pre-kindergarten/



중국청년정치학원 간 정기학술교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 원장은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2일 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중국청년정치학원 간 정기학술 교류에 참석하였다. 중국청년정치학원은 1948년 중국의 청년리더육성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며, 1985년에 기존의 청년리더양성에 더불어 대학기능을 갖추어 현재와 같은 중국청년정치학원이 되었다. 2010년 현재 15개 행정지원 조직과 14개 본과 전공(사상정치교육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사회사업, 노동과 사회보장학, 경제학, 국제경제무역학, 신문/방송학, 중문학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2005년 개소된 청소년발달연구소를 포함하여 8개 연구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명숙 원장은 금번 정기학술 교류를 통해 본원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양 기관의 적극적 학술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연구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 원장과 중국청년정치학원 이가화 부원장이 양 기관의 학술교류와 관련하여 연구진들과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핵심역량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10월 26일(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 실시된 국제청소년시민의식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또한 뉴질랜드의 핵심역량교육 사례와 일본의 인터넷학습공동체를 통한 핵심역량 교육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명숙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정책은 시급한 과제"라며 "다문화·다가치 사회에서 세계시민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시민의식과 태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체 협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권대봉 원

장은 환영사에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극 대응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호주 교육연구위원회 John Ainley가 국제청소년시민의식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무엇이 조사됐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어떠한 지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김기현 박사는 '한국청소년의 핵심역량지표개발과 국제비교: PISA, ICCS 조사결과에의 메타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생애핵심역량지표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지적도구활용역량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율적 행동역량지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이번 호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현황과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66.7%)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동아리모임참여(29.4%), 인터넷을 통한 참여(27.9%), 청소년문화행사참여(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신성적반영(54.1%)인 것으로 드러나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지원과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봉사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돼야 할 것입니다.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82-2-2188-8860/8800 Fax.82-2-2188-8869

www.nypi.re.kr